

지금 우리 곁에서는 - 국제포교 중심 사찰 화계사



화계사는 매년 송산장학회를 통해 인근 학교와 신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4일 장학금 전달식 장면

세계일화대회로 송산 스님 유훈 기린다

도심사찰 화계사는 국제선원과 계룡산 무상사와 영주 현정사는 물론 세계 곳곳에 120여 개의 선원에서 외국인 수행자들이 정진하고 있는 국제포교 중심사찰이다.

대적광전에서는 매일 오전 10시~12시 기도, 수요일 저녁 7시부터 제일선원 참선정진, 일요일은 9시 30분 일요법회·참선법회, 토요일 국제선원 철야 용맹정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초보 불자를 위한 3개월 기본교육과 교양과정, 2년 과정의 불교대학은 주간과 주말반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불교대학원 역시 1년 과정으로 올해는 3월 8일 입학식을 앞두고 있다. 국제선원은 매주 일요일 영어 회화 강습과 영어 참선 법회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화계사의 가장 큰 행사는 10회를 맞은 세계일화대회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송산 스

님의 유훈과 가르침을 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미국 폴란드 등 화계사 해외 선원이 위치한 나라에서 3년 마다 열리고 있다. 송산 스님 열반 10주년을 맞아 화계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생생보살도'를 주제로 10월 16일~28일 개최되며 이 자리에는 송산 스님이 창건한 국제관음선종의 수행자들이 세계 각국에서 참석한다.

일정은 화계사, 수덕사, 계룡산에 위치한 국제선원 무상사를 참방하고 대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2박 3일 동안 본대회를 연다. 이후 무상사에서 송산 스님 10주기 추모재를 치루고 전국 주요 사찰을 순례한다.

이밖에도 화계사에는 신도회,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등의 신행단체와 신도회 안에 거사회, 합창단 각종 봉사단체들이 활약하고 있다. 특히 화계사는 신도회를 중심으로 자비보시기금회를 마련 1인 1불자 성금을 모아 해외 포교 지원,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 지원, 법보시 등을 하고 있다.

송산장학회 역시 주목할 만하다. 사찰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과 신도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월 4일에는 신행단체 자녀들에게 장학금 1050만원이 지급됐다.

정혜숙 기자

화계사 3월 캘린더	
3월 8일	불교대학 입학식 연등축제 연희단 구성
3월 14~16일	불산신 3일 기도
3월 20일	회향 기념으로 충북 진천 보탑사 순례 문수나한 33일 기도 입재

“법인법 쟁점 사항 조율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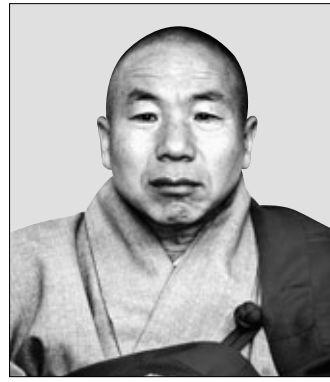
조계종 총회위원장 항적스님

12일 신년간담회서 밝혀

법인법, 종도들 공감대 낮아

집행부와 협의 마무리 노력

“중정 스님 도움도 필요해”



조계종 스님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쟁점인 만큼 이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선학원 특위가 아직 해체되지 않은 만큼 15대 총회에서도 잘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정 스님의 주석처인 부산 해운정사는 선학원 등록 사찰인 만큼 선학원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중정 스님의 중재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선학원 특위원장 성직 스님에게도 이 같은 부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5대 총회의 가장 큰 성과로 스님은 출가 활성화 위한 ‘청소년 단기출가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항적 스님은 “출가자 감소는 현대 불교가 해

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면서 “종단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출가 정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올해 총회에서는 출가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총회 활동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종도들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고, 후반기 총회의 경우 차기 총회의원 선거가 있어 의정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는 16대 총회의원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오는 3월 18일 5일 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 197회 총회에서의 쟁점 사안인 ‘비구니 호계위원 참여’ 중헌 개정안은 통과를 기대했다. 항적 스님은 “비구니 갈마는 비구니가 해야 한다는 데 총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3월 총회 전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총회위원들의 잇단 승품실수에 대해서는 윤리 특위 구성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다. 스님은 “현재 호법분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위가 3월 총회 전 의장단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를 통해 어떻게 처리할 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선학원-수덕사 ‘정혜사’ 운영권 갈등

선학원 “재무 인수인계” VS 수덕사 “협조 수용 불가”

예산 정혜사의 사찰운영권을 놓고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과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지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선학원은 정혜사에 2월 3일 시행문을 통해 동안거 해제일인 14일 정혜사의 사찰운영권을 인수인계 받겠다는 의지의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학원은 지난해 1월 수덕사 측에 “조계종 덕승총림 임회가 가지고 있는 정혜사와 간월암의 창건주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였으며, 9월에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덕승총림 임회의 정혜사와 간월암 창건주 권한을 취소하고 사고사찰로 지정했다.

이에 수덕사는 선학원의 예산 정혜사와 서산 간월암에 대한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수덕사는 “향후 더 이상 정혜사와 간월암에 대한 선학원의 부당한 분원장 임명이나 분담금 부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사찰에 대해 선학원이 인수인계를 통보하고 나

서는 것은 근본정신을 잃고 재산에만 관심을 가진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학원은 협조 공문이 ‘사찰 접수 기동’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선학원 관계자는 “단순히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하려 한 것이고, 등록을 원상복구하라는 것이 공문의 요지”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한 것처럼 물리력을 동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만공 스님이 창건한 정혜사는 수덕사 말사이자 선학원의 분원으로 중첩 등록돼 있다. 현재 설정스님이 주석하며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신종일 기자

태고종 발전위 출범, “중흥 계기로”

2월 10일 각계인사 70여명 망라해 구성

“종교를 초월해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불교 속에서 태고종만의 특색을 널리 알리는데 데 앞장서겠습니다.”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은 2월 10일 태고종 총무원인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에서 태고종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종단쇄신과 불교문화 창달의 뜻을 모았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금실 前법무부장관을 비

롯해 정찬용 인재육성아카데미 이사장, 김중규 삼성출판사 회장, 강용수 창원대 명예교수, 최행식 원광대 교수 등 70여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또 이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 문희상 민주당 국회의원, 박덕홍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정관계 인사들이 고문 및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산 스님은 “사회회화와 불법홍포의 새 도

약의 계기로 원용살림을 살리기 위해 나설 것”이라며 “태고종 교유의 문화와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태고종이 우리 사회의 종교적 소명 의식에 앞장서고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더 높이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한명 한명이 태고종을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다짐해달라”고 말했다.

부의장을 맡은 최행식 교수는 “태고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오늘 발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투쟁 노동자 위한 전용 법당 만든다

조계종 노동위 신년계획 발표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가 노동자들의 쉼터가 될 전용 법당을 마련한다. 또한 불교계의 뇌관과 같은 노동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도 나선다.

노동위는 2월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날 노동위는 노사분규 지원을 비롯해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법회 및 천도재 △노동문제 불교적 해법 연구 △노동자 법당 추진 △일반회원 가입 유도 등을 올해 중점 사업 계획으로 내놨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전용 법당 추진이다. 위원장 종호 스님은 “전용 법당에 대한 의견이 불교계 안팎으로 높게 나왔다”면서 “법당에서 노동자 심리 상담, 명상, 경전 공부 등을 상시 진행할 수 있는 노동자 상설 공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위는 올 하반기 노동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법당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불교계 내부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공양주, 부목 등 불교계 내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급여와 고용형태, 4대 보험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종호 스님은 “사찰마다 워낙 여건이 달라 사회의 노동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표본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회원 가입을 통한 조직 확장도 나선다. 종호 스님은 “대중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노동위와 일반 노동자들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올해 일반회원 100명 이상 확충으로 ‘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위원회’의 의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사찰 종무원 교육

기부금 예규 변경 보고

조계종, 첫 교구본사주지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의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의 2014년 첫 회의가 2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전국 교구본사 주지 1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종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기획재정부의 49세 등 기도비 기부금 포함 예규변경 △사찰 종무원 교육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3월 결산총회를 앞두고 종단에 여러 가지 현안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면서 “안건을 주의깊게 보시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양성전문강원

2014(불기 2558)학년도 상원사 부설 삼학불교강원 학인모집 안내

사정상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에 뜻을 두고 있는 불자 및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전문 강원 과정의 교육을 개설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과과정안내

과정	교육기간	교과목		강의요일	강의시간	비고
		1학기 (5개월)	2학기 (5개월)			
치문반	1년	초발심자경문 승가율의	치문	매주 월, 화	*1교시 : 오후 6:00 ~ 오후 7:30 *2교시 : 오후 7:40 ~ 오후 9:10	2014년도 개강
사집반	1년	도서, 선요	서장	목, 금		2015년도 개강
사교반	2년	금강경오가해 대승기신론	대승백법명문론 / 원각경 능엄경	목, 금		

상원사 주지 강법정  
삼학강원 강주 박도종 합장

◆ 모집인원 : 00명

◆ 개강일시 : 2014년 3월 13일(목요일) 개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 2매

◆ 수 강 료 : 1학기당 40만원

◆ 접수문의 : ☎ 02)833-0374, 833-0375  
Fax, 02)834-0789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8~4

☞ 찾아오는 길 ① 전철 2호선 8번 출구 → 대동초등교 → 관악농협 맞은편  
② 전철 7호선 11번 출구 → 대동초등교 → 관악농협 맞은편

◆ 한문이 익숙하지 못한 분이라도 낱자를 잡아 강의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본 강원은 초종파 강원으로 불교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